<남매사이> 시나리오 6고

전예은

S#1. 금잔디 앞. 낮
지은, 수현, 유라, 동기1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유라
아무리 생각해도 서훈선배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수현
진짜??

동기1
뭐야 뭐야~ 더 얘기해봐~

유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있잖아... 여자의 촉이랄까?

지은은 신기하다는 듯이 유라를 쳐다본다.

동기1
CC 탄생인가요~ 아 근데 서훈 선배, 진짜 성격 좋지, 인물 좋지~

유라
내가 이런 일이 흔해서 원래 신경 잘 안 쓰거든?
근데 자꾸 날 보고 댕댕이 같이 웃는데, 너무 티 나는 거 있지~

PAN

지은
(벙찐 표정으로) 미친년..

S#2. 집. 거실. 낮
집에 돌아온 지은을 맞이하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서훈의 꾀죄죄한 얼굴.
CUT TO 서훈이 화장실에서 문을 살짝 열고 '나 휴지 좀!'하는 모습, 식탁에 앉아 트림을 꺼억 하는 모습. 거실에서 누워서 배를 긁으며 계속 빈둥대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간다.

지은
(정색하며) .... 미친년.

지은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본다. 서훈은 폰을 보면서 혼자 웃는다. 갑자기 울리는 지은의 핸드폰, '카톡!'.

지은
(폰을 확인하더니) 무슨 바로 옆에 있으면서 카톡이야..!

서훈이 보낸 사진을 보는데, 개 얼굴이 강이 되어있다.

지은
(정색하며) 아 또 뭐야 이게...!

서훈
약ㅋㅋㅋ 그게 뭔지 알아??

지은
알고 싶지 않아..... (오빠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서훈
개강이랰ㅋㅋ 겁나 웃기지 않냐?? 개 표정 좀 봐ㅋㅋ 야 레알 너랑 닮았는데?!!
어이구 지은아, 왜 거기 있니... 왜 강이 됐어... 왜 말을 못해...ㅠ

지은
(오빠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댕댕이는 무슨... (이어폰을 다시 끼며)

타이틀. 남매사이.

S#.3 등굣길 (금잔디 옆 언덕)
(측면샷) 둘이 앞뒤로 따로 걸어간다. 언덕에서 오빠 발이 프레임 아웃 하고나서야 프레임 되는 지은의 발.

S#.4 복도
(정면샷) 서훈은 복도의 오른편, 지은은 왼편에서 걸어간다.

S#5. 학교. 과방. 낮.
왁자지껄한 과방에 수현이 들어온다. 서훈은 다른 후배와 번호를 주고 받고 있다.

수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안녕!!
(옆에 있는 서훈에게) 어, 선배! 안녕하세요!

서훈
안녕~ 아, 너 시간 언제 비는지 좀 알려줘. 밥 먹자.

서훈과 얘기하다가 한쪽에서 살짝 어색해하고 있는 지은을 보고,

수현
안녕? 지은이라고 했지?

지은
아, 응. 안녕!

수현
와 과방에 사람 진짜 많다.

지은
그러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ㅎ

지은과 서훈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다. 곧이어 몇몇 선배들과 함께 서훈이 과방에서 나간다.

수현
이제 우리도 차차 익숙해지겠지 뭐 ㅎㅎ

지은
그래도 너는 벌써 많이 친한 것 같던데?

수현
아니야~ 그냥 내가 나대는 거지 뭐.

그때, 울리는 카톡. 지은이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지은
아 귀찮게 진짜.... 나 잠깐 강의실 좀 다녀올게!

수현
어? 수업 있어?

지은
아, 아니. 오빠가 책 놓고 갔다고 해서.. 지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수현, 유라와 친구들
오빠? 너 오빠 있어?? 누군데???

지은
김서훈.

수현, 유라와 친구들
엥???? /서훈 선배??/ 전혀 몰랐는데?! /헐....

지은
나 다녀올게!

수현
어, 나도 같이 가!

과방에 있던 책을 들고 나가는 지은과 수현.

S#6. 복도
지은과 수현이 책을 전해주고 돌아오는데, 과방에서 나온 유라와 마주친다.

유라
저기, 지은아!

S#7. 화장실 OR 은밀한 공간. 낮

유라
(비밀 얘기 하듯) 내가 서훈오빠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ㅎㅎ
오빠가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했다!!!!!!!!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대수인가 싶은 지은과 수현.

지은
아... 그래?

유라
(조금 흥분하며) 오빠가 나한테 '먼저', '단 둘이' 밥 먹자고 한 거면, 딱 답 나왔지 뭐.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래, 처음부터 필이 딱 왔다니까?

지은과 수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썹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유라를 쳐다본다.

유라
그리고 오빠가 계속 나한테 뭐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고.
참, 뭘 또 이렇게 적극적인지...

수현
음.. 유라야, 그건 그냥.. 선후배로 밥 먹자고 물어본 거 같은데...???

유라
아, 네가 그때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수현
그래도....

유라
어머, 너 지금 나 질투하니??

수현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유라
됐고, 물론 내가 오빠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이 가상하니까,
나도 예의상 좀 알아가려고. 네가 좀 도와줘.

지은
응? 내가? 어떻게?

유라
오빠 취향 좀 알려줘. 넌 동생이니까 잘 알거 아니야~

지은
취향....? 좋아하는 거?

유라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나...

지은
좋아하는 거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안 떠오르는데...

유라
그럼 카페가면 보통 뭐 먹어?

지은
아 커피! 커피는 절대 안 마실 거야. 독약 먹는 기분이라고 그러거든.
흠, 좋아하는 음식은... 그냥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생존을 위해 먹는 신기한 종족이야.
취미는... 독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되게 별론데.. 또 뭐가 있지..

유라
아니야, 사실 이미 잘 될게 뻔해서~ 성의 보이는 정도면 됐지 뭐.

자신만만해하며 가는 유라.

S#8. 과방. 다음 날.

동기3
지은아, 나 어제 들었는데, 진짜 서훈오빠랑 남매야?

지은
응! 맞아.

동기1
와 진짜 안 닮았다.... 둘이 남매라고 말 안 해주면 그냥 남남 같아!

지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동기2
와 안 닮은 것도 신기한데.. 둘이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둘이 친해?

지은
음.. 친한 편이지...??

동기1
보통 친한 남매 보면 (화면인서트+보이스오버) 막 닭살 돋게 엄청 다정하다거나, 투닥투닥
거리면서 장난친다거나 그러잖아~ 근데 너는 오빠랑 안 그런 것 같아서~~

수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다~
나 같으면 내 오빠, 내 동생이라고 처음부터 말할 것 같은데..

지은
아...ㅎㅎ 그런가...??ㅎ

동기2
아무튼 진짜 신기하다!! 남매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라니!

즐겁게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그 사이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지은.

S#9. 카페
수현,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지은은 지나가는 유라를 발견하고 찾아가 말을 건다.

지은
유라야, 어제 밥 잘 먹었어?

유라
아, 응!! 완전 분위기 좋았지 뭐~

지은
아 정말?

유라
1분 1초도 나한테서 눈을 못 떼더라.
또 어찌나 다정하게 챙겨주는지~ 주변에서 막 다 쳐다봤다니까?

지은
아... 하하 좋은 시간이었다니 다행이네~

유라
(가려다가) 아참, 근데 너가 말해준 건 하나도 안 맞더라? 나니까 잘 끝났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너 머리채 잡혔을 걸?

지은
응?

유라
서훈오빠, 커피도 좋아하고, 맛 집도 꿰고 있고, 영화나 다른 취미도 많던데?
난 너가 훼방 놓으려고 일부러 반대로 얘기한 줄 알았다니까?
뭐 덕분에 너 말이랑 다른 게 반전매력으로 느껴져서 좋았지~
또 어디서 내 얘길 하고 있으려나~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유라. 남겨진 지은은,

지은
(벙찜)..... 그럴 리가 없는데...

친구들
야, 재 완전 도끼병 아니야???? / 마자.. 서훈 오빠 원래 후배들 밥 잘 사주잖아.

동기1
(웃으며) 근데 지은아, 진짜 다 잘못 알려줬어? 너 진짜 오빠랑 별로 안 친한 거야?
아니면 일부러 훼방 놓으려고 그런 건가..???

지은이 계속 어이없는 표정으로 있자,

수현
(지은을 쳐다보며)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S#10. 집. 거실. 저녁
지은이 거실에서 폰을 하고 있는 오빠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간다. 그랬다가 다시 나와 오빠에게 묻는다.

지은
오빠, 내가 카페에서 항상 뭐 마시는 지 알아?

서훈
(폰 쳐다보며) 응? 몰라.

지은
내가 뭐 좋아하는지는 알아?

서훈
(폰 쳐다보며) 응? 당연히 모르지.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지은
뭐가 이렇게 당당해...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야..?

서훈
(뻔뻔) 모른다니, 섭섭하게~ 너 프라이버시 지켜주는 거잖아~

지은
그치만.....

서훈
오니짱...????! (장난스럽게)

지은
(정색하며 째려본다) 아니...

서훈
(드립에 혼자 취해서)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니짱....

지은
아 쫌!!! 진짜 한순간만이라도 좀 진지해질 수 없어?
바깥에서는 그렇게 멀쩡한 척 하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진짜?

서훈
(지은을 따라하며) 너야말로 웨 이뤱 쥔짜~~아~?

지은
(정색) 아 따라하지 말라고~

서훈
아 따롸하지 말라고오오~~

지은
(째려보며) 아니, 동생을 잘 모르는 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서훈
아무렣지도 아놔?

지은
이게 미쳤나.

서훈
이게 미쳤내~

지은
아 진짜 왜 이래! 이 진절머리야!

서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니, 오빠면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세상에 어떤 친오빠가 그렇대? 그거 다 너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야~ 그렇게 치면 내 동생은 국민여동생 아이유 정돈 돼야지~ 어디 있니? 어디로 숨었나? (찾는 척)

지은
하, 진짜 오빠한테 기대한 내가 미쳤지... 이런 걸 오빠라고...

지은은 크게 발걸음 소리를 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S#11. 집. 방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투덜대는 지은.

지은
참나, 뭐 프라이버시? 항상 입만 살았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닐라고...!

침대에 몸을 던지며,

지은
하아아아아아 그래, 동생한테 관심 없어서 혼자 맘 편하고 아주 좋~겠다~~

뒤돌아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지은.
(플래시백) '너 진짜 오빠랑 별로 안 친한 거야?'라는 동기1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생각이 복잡해진다. 몸을 뒤척이다가 한숨을 쉬는 지은.

지은
손이라도 잡고 다니라는 거야, 뭐야?

순간 오빠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더니 이불을 발로 차며,

지은
(오버하며) 우웩.. 켁... 켁켁.. (기침하며) 아.. 기분 더러워...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간다.

S#12. 집. 거실. 밤
지은이 거실로 나와 보니, 오빠가 혼자 떡볶이를 한입 먹으려다가 들켜 깜짝 놀란다.

서훈
아 깜짝이야.... 진짜 어떻게 뭐 먹을 때 항상 귀신같이 알고 나오냐....

지은은 오빠 말을 무시하며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간다.

서훈
야.

계속 무시하는 지은. 그러자 서훈은 지은이 대답할 때까지 부르며 호들갑을 떤다.

지은
아 뭐!!!!

서훈
나 물 좀.

지은
아 꺼져.

서훈
아 물 갖다 주면 떡볶이 먹게 해줄게.

지은
(오빠를 째려보며)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지??

서훈
아 빨리~~~~ 무우우우울~~~

지은
(물 가져다주며) 아주 구질구질하다 진짜...

서훈
야, 사람이 한결같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알아?

지은
(헛웃음) 하, 그래.. 그것도 네 능력이지....

젓가락을 집고 바로 먹기 시작하는 지은. 치즈를 집는데 치즈가 끊임없이 따라온다. 지은이 치즈를 끊지 못하자 서훈이 젓가락으로 치즈를 끊어주려고 하는데, 치즈가 서훈을 따라가며 지은과 서훈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그렇게 서로 쳐다보는데... 아름다운 노래와 샤랄라 한 조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가위를 꺼내 치즈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서훈. 그릇 안에 있는 치즈까지도 거침없이 다 조각내어 버린다.
지은은 깔끔하게 잘린 치즈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럼 그렇지~'하는 표정으로 다시 떡볶이에 집중한 서훈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지은도 맛있게 먹는다.
먹방을 찍는 남매.
발랄한 노래가 나오며, 페이드 아웃

INSERT
학교 전경, 금잔디와 도서관 사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 금잔디 회전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에서 음료를 들고 나오는 지은과 수현.

S#13. 학교. 금잔디 옆.
지은이 수현과 금잔디 옆을 걷고 있다. 그때 지은을 찾아오는 서훈의 친구.

서훈의 친구
어, 너 서훈이 동생 맞지? 걔 지금 어딨어??

그러자 지은은 당당하게,

지은
오빠요? 아, 제가 오빠를 잘 몰라서요~!

그때 서훈이 식당에서 나온다.

지은
아, 저기 있네요! 그럼 전 이만...

지은은 수현과 걸어가고, 그 뒷모습을 쳐다보며,

서훈 친구
야!! 왜 너 여동생 예쁘다고 말 안했어?

서훈
미친 놈.

Black out.

Sound only. 야, 내가 뭐 소개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친 놈.

타이틀.
엔딩 크레딧.